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경쟁의 해법

金 容 雄 (충남발전연구원장)

호남고속철도 분기 역 결정을 앞두고 충청권내 3개 시·도 간 분기 역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저마다 유리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지역이 최적의 후보지임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지역이 앞 다투어 유치 경쟁을 벌리는 것은 미래의 국가간선교통망이 교차되는 고속철도 분기 역은 역사주변 뿐만 아니라, 지역전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안을 놓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역간 경쟁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활력의 원천이다.

호남고속전철 분기 역 유치 경쟁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지역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경쟁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열망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가사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사업과 투자에 대한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확대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분기 역 유치 경쟁이 지역발전에 있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쟁의 논리와 방법에 있어서도 상호합의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호남고속철도 분기 역의 최적 입지 주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경쟁과 주장은 국가적 이익과 합치될 때만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광양 항 및 서남 해양권 산업지대 개발과 호남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교통망 체계를 고속화하여 국토전반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 후에는 통일국토의 간선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화에 대비해서는 TCR 및 TSR 등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철도와 연계까지도 염두에 둔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을

쌓는 과업이다. 분기역의 입지는 호남고속철도의 건설목적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판단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와 근거만을 주장하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지역간 최적지 논쟁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활용해야 한다. 자기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관적 자료생산 경쟁은 중단돼야 한다. 주관적인 논리의 전파는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갈등을 증폭하는 원인이 된다.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분기 역 입지에 대하여는 1990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이 3차례에 걸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

셋째, 호남고속전철 분기 역 입지 경쟁에서 정치적 논리와 개입을 배제해야한다. 고속철도 분기 역 입지는 고속철도 노선과 직결된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결정사항이다. 이 같은 전문적인 결정사항을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남고속철도 분기 역 유치경쟁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대결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전문가집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주장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주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타협정신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분기 역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지연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단기적인 경제논리로만 이해하려는 집단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지연 논리를 전파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기 역 유치경쟁이 그동안 전국적인 모범사례인 충청권내 3개 시·도간 협력과 공조전통과 문화의 훼손으로 이어저서는 안되는 것이다. 분기 역 유치 경쟁이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충청권 지도역량 발휘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